

※ 본 정보지의 영어판·중국어판·한국어판·프랑스어판은 당협회 HP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2011년 8월 10일 발행호

이번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빠른 복구와 부흥을 기원합니다. 후쿠시마현의 현재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는 지금



오제습원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 (히노에마타무라, 2011.7.14 촬영)



제철을 맞이한 복숭아의 판매 (다테시, 2011.7.27 촬영)



와라지 축제 (후쿠시마시, 2011.8.6 촬영)



후쿠시마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스즈키 에미코씨 (히로노마치, 여성)

“지켰다”는 말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히로노마치는 원전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자주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재해 발생 직후에는 오노마치로 대피를 했고 이후에는 현내에 있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0 세인 어머니가 재해의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 히로노마치의 집으로 하루 밤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출입금지구역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증계지여서 수많은 행정, 의료, 경찰, 전력회사 등의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재해 발생 후 5 개월이 흘렀지만, 한번도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든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서 안될 것 같아 손자들을 돌보는 것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카마쓰 토요씨 (다테시, 여성)

저는 올해 72 살입니다만, 이 나이에는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사능에 대한 걱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과연 어느 쪽이 몸에 좋은 걸까요. 그건 그렇고 원전사고직후 2~3 일간은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방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배급 받기 위해 밖에 줄을 서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폐닉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더 정보를 주었다면 불필요한 피폭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나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쌓기보다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구스타보 오리비라씨 (후쿠시마시, 브라질출신 남성)

저에게는 작년 12 월에 막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재해발생 당시에 전기,수도,가스가 단절되고 가게도 문을 닫아 우유와 기저귀를 구할 수 없었고 아내도 스트레스로 모유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전사고 발생 후, 한달 반 정도 아내의 친정인 뉴질랜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은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와 나름대로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을 목말을 태우고 산책을 하거나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저는 후쿠시마의 복숭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농학부 출신이라 농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진 류씨(신치마치, 미국출신 남성)

3월 11일 재해 발생 후, 저의 생활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있고 주위 사람들의 최악의 상황을 알아도 불평불만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살아있는 사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입니다. 이 후쿠시마가 재난으로부터 눈길을 돌려버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부흥을 향해 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내의 ALT(영어지도조수)동료들이 하고 있는 지원활동에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발행자

(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